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

(시편 34:1~22)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

우리가 어제 죄사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허물에 대한 죄사함의 의미를 연장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면 등진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허물의 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 사람은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등지면 우리의 삶은 천지를 무에서 유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입 기운에 의해서 장악된다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를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물이 벽처럼 쌓이는 것을 보고 마른 땅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다윗도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던 중에 다윗은 골리앗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했습니다.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등진 골리앗은 하나님의 입 기운에 사로잡히고 장악되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을 등진 사이에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세상을 장악하실 때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고 계신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등진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별로 못 본채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 기운이 내가 등진 세상을 장악하더라도 삶의 영역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위대함으로부터 마음이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에서 유로 불러내신 어마어마한 입 기운에 의해 일어날 일들을 눈곱만큼의 성취도 못 본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 기운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세상을 등졌다고는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바라봅니다. 이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위대한 그 일로부터 내 마음이 필사적으로 탈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 번 보면 <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대함으로부터의 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다고 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자리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일어나는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대하게 여기려 할 때에 필사적인 각오로 그 자리에서 탈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을 등진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의 시는 표제어에 명시된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표제어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때의 왕의 이름은 아기스였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에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위대한 전사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보복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서 미친 체하며 그 위기를 겨우 모면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통해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이미 국민들이 지지하는 실권은 다윗임을 블레셋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다윗의 행동이 표현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의 시는 1~3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과 본 시의 분위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 선 다윗을,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찬송할 만한 대단한 일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만 해도 민망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목숨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겨우 구한 것은 천만다행이었지만 이것이 과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서 일어나야 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이나 신하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다윗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게 하셨다면 본문의 내용이 그럴 듯 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의 일본과도 같은 숙적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혹은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잠시 멀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다윗이 미친 바보의 흉내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한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업적을 송축할 만 했을 것입니다.
집안의 명예를 중시한다는 일본의 사무라이들이나 일제하에서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된 독립군들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미친척하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 끄적거리면서 수치스럽게 목숨을 부지하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국의 왕을 암살하려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혹은 용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결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더라도 미친 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구해서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강한 집

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끈질긴 생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을까요?
5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의 배경으로 지어진 시의 내용 속에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친 체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하고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유체이탈법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몰아붙이셨으면 다윗이 원수인 블레셋 왕 앞으로 피신을 했겠습니까? 블레셋은 용사인 골리앗을 잃고 다윗을 철천지원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의 추격 때문에 어느 곳에도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적국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가는 편이 더 안전하겠다고 여길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신하들이 언급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이 사건은 이름도 없는 다윗을 어린 목동으로부터 세상의 위대한 영웅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온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위대한 승리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오히려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자신이 아님을 뼛속에서부터 거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라고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에 다윗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용인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귓등으로 밖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만이라'는 노래가 나오질 않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함이 자아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친 척을 한 사건 이후로는 다윗의 자아는 위대함에서 미친 바보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위대한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친 바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미친 바보요 다윗은 미친 바보로다'라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다윗을 블레셋으로 몰아가셔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하게 하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위대함을 부인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자

신을 칭송하는 노래를 은근하게 기뻐하며 즐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로 인해서 죽게 되자 스스로를 미친 바보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용사의 자리에서 가장 거리가 먼 대척점에 서 있는 미친 바보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궁지로 밀어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 왕과 신하들에게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인 그 위대함이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었음을 설득시켜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함을 이룬 자라는 인식을 까부수기 위해서 위대한 자의 대척점에 서있는 미친 바보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14~15절에서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라고 합니다.
다윗을 아무 쓸모가 없는 자로 설득시킵니다. 다윗은 그 위대함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자아의식은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기스 왕 앞에서의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서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간 후에 다윗이 쫓아 나와서 한 말이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자신의 무죄함과 애국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지곡이 되었을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를 여전히 불렀을 것입니다. 골리앗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으면 왕이 사위를 삼았겠느냐며 자신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아의식에서 이제는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세상을 등졌을 때에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통치를 받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지라도 자신이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미친 바보에 불과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미친 바보요 죽은 개와 벼룩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송을 가로챈다면 그 위대함 때문에 죽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귀신들린 여종이 이들을 따라 다니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칭송을 하자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관리들이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다면 잡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형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칭송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로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맞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무당처럼 숭배하려 함을 보고 괴로워하며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등지자 하나님의 입 기운의 역사가 끊임없이 활동하시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함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필사적으로 그 위대함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에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를 고치자 무리가 칭송할 때에 필사적으로 그 위대함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를 악물고 탈출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미친 바보는 위대함으로부터 탈출하는 작전명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을 등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입 기운이 일하실 때에 생겨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성취 앞에서도 스스로를 죽은 개와 벼룩 같이 여기고 미친 바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곧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입 기운을 보지 못한 채 나를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개와 벼룩이 되어야 하고 미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온갖 세상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굳건하게 지속될 수 있고, 내 등 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입 기운의 역사도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든지 우리는 <탈출 작전명 '미친 바보'>를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함에 유혹받기 쉬운 악한 체질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성임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등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입 기운이 끊임없이 역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